

##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한 유 미·오 경 숙\*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유아교육 전공  
고은벨스토리랜드 어린이집\*

### Parental Efficacy, Parental Role-sharing and Parental Stress

Han, You Me · Oh, Kyeong Soo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Goeunbyeol Storyland Child-care Center, Pyeong taek,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ouple's parental efficacy combination and, then, analyze parental role-sharing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is combination type. The subjects were 307 couples who have a child in 1st or 2nd gra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and mothers, as a group, did not differ in terms of parental efficacy. Secondly, some demographic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efficacy. Thirdly, there are more couples who have similar levels of parental efficacy than those who have different levels of parental efficacy. Fourth,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role-sharing was found among the 4 types of couple's parental efficacy. Fifth, mothers had low parental stress when both of the couple had high levels of parental efficacy while fathers perceived low parental stress if only he, himself, had a high level of parental efficacy.

Key words: parental efficacy, parental role-sharing, parental stress

#### I. 서론

학령 초기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부모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하여 양육자로서의 역할, 기본 신뢰 형성자로서 역할, 발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Berk 2002). 이와 같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 변인으로 연구자들은 부모효능감을 들고 있다(김진희 2005; 문혁준 1999; 안지영 2001; 이슬기 2005; 최

형성 2005; Martin & Sanders 2003; Webster-Stratton 2000). 부모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행동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효능감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최형성 2005; 2006).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반면(Dorsey & Klein &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oleman & Karraker 1997).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부모 자신의 만족감 뿐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연령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정혜인 2003; 최형성 2005). 하지만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수, 성별,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남편의 육아협조(문혁준 1999; 안지영 2001; 한유미 2003) 등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녀양육에서 어머니를 1차 양육자로, 아버지를 2차적인 역할을 하는 양육자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이 부모 공동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을 다룬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김영희·선희정·채영문 2007; 이슬기 2005).

한편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양육내용에 따라 아버지의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목

욕시키기, 우유(식사)먹이기와 같이 노동적인 의미가 강한 보육적인 일은 주로 어머니의 책임인데 비해 자녀와 놀아주기와 같은 여가적인 특성이 강한 일에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양정화 2002). 또한 양육분담은 아버지의 연령(홍영희 2006), 교육수준(김은정 2002; 홍영희 2006), 자녀수(홍성례 1995) 등의 변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양육분담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성역할태도(강학중·유계숙 2005; 손유기 1998), 직업지향성이나 가정지향성(손유기 1998) 등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많고, 부모로서 자신을 유능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한유진·김선애 2007). 이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으면 실제 양육 상황에서 자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양육행동의 수행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점차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다. 특히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이 미흡한 반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로서의 부담이 막중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도 높아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김미숙·문혁준 2005; 안지영 2001; 이슬기 2005)은 주로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 부모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자녀양육과 관련한 자신감이 부족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되기 쉽다는 점에서 볼 때(이은숙 1988) 양육스트레스 역시 부모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부모효능감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배우자의 부모효능감 수준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육은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유진·김선애(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아버지가 평가하는 본인의 아버지 양육수행도 높이나 나타난 것과 같이 부부간의 양육에 관한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유사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부모 모두 효능감이 높거나 낮은 가정) 어느 한쪽은 부모효능감이 높는데 다른 쪽은 부모효능감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 자신의 부모효능감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효능감과 조항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나 양육분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김현미 2004; 류기자 2006; 안지영 2001; 이슬기 2005)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각기 다루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은 가족(부고-모고)과 모두 낮은 가족(부저-모저),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높는데 어머니는 낮은 가족(부고-모저),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낮는데 어머니는 높은 가족(부저-모고) 등 4집단으로 부부의 부모효능감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 1-1. 부모효능감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부부간의 부모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조합을 보이는가?
2. 부모효능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1.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2.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부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라 양육분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부부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1. 부부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2. 부부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307명과 어머니 307명으로 총 614명의 부모이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에서 1개교씩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당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중·소도시 C시에서 1개교와 P와 Y 등 읍·면 지역 3개교에서 각기 2학급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을 대표하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 등 지리적 위치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부모효능감 척도

부모효능감은 Floyd과 Gilliom과 Costigan(1998)의 지각된 부모역할 효능감(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을 수정, 번안한 안지영(2001)의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역할의 자신감(Parenting Competence Scale) 7문항과 부모역할의 어려움(Under Control Scale) 8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지영(2001)이 번역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부정적인 부모효능감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Floyd, Gilliom, & Costigan, 1998)의 번역에 충실하도록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subjects

Variable		N(%)	Variable		N(%)
Area	metropolitan	100(32.60)	Number of child	one	56(18.60)
	small city	107(34.90)		two	193(64.10)
	rural area	100(32.60)		three	42(14.00)
				four or more	10(3.30)
total	307(100.00)	total		301(100.00)	
Age of child	7 and below	146(48.70)	Sex of child	male	165(55.40)
	8 and above	154(51.30)		female	133(44.60)
	total	300(100.00)		total	298(100.00)
Birth order of child	first	129(42.90)	Average family income	under 2,000,000won	45(15.30)
	second	96(31.90)		2,000,000 ~ 2,999,999won	92(31.20)
	third and below	21(7.00)		3,000,000 ~ 3,999,999won	64(21.70)
	only child	55(18.30)		above 4,000,000won	94(31.90)
	total	301(100.00)		total	295(100.00)
Father's age	25-35	77(25.70)	Mother's age	25-32	62(20.80)
	36-38	89(29.70)		33-35	79(26.50)
	39-41	70(23.30)		36-38	104(34.90)
	42-54	64(21.30)		38-54	53(17.80)
	total	300(100.00)		total	298(100.00)
Fa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04(34.70)	Mo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34(46.70)
	college/university	158(52.70)		college/university	133(46.30)
	graduate school	38(12.60)		graduate school	20(7.00)
	total	300(100.00)		total	287(100.00)
Father's occupation	no	7(2.40)	Mother's occupation	no	137(47.70)
	blue color	49(16.60)		blue color	18(6.30)
	sales/service	49(16.60)		sales/service	41(14.30)
	white color	58(19.70)		white color	39(13.60)
	management	51(17.30)		management	10(3.50)
	professional	81(27.40)		professional	42(14.60)
	total	295(100.00)		total	287(100.00)

‘부모역할의 어려움 통제’로 용어를 바꾸고, 역채점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수정하였다. 총 문항은 15개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보이며, 신뢰도  $\alpha$ 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3, 부모역할의 어려움 통제 .77이었다.

2) 양육분담 척도

양육분담은 일상적인 양육 활동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많은 참여를 하는가에

관한 척도로서 장혜경과 김혜영과 홍승아와 은기수와 이명진과 김영란과 주재선과 송지선(2005)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총 10문항을 자체 제작하고 아동학 전공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보이며, 신뢰도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3) 양육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이나 부모 역할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며, 신뢰도  $\alpha$ 는 .93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각 초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얻어 총 780부(아버지용 390부, 어머니용 390부)를 배부하여 693부가 회수 되었으나 이중 질문지나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질문지가 수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614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부모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1)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의 차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연구대상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의 평균은 하위 영역 및 총점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ndependent t-test of parenting efficacy

	Father M(SD)	Mother M(SD)	t
Parenting competence	22.58(3.75)	22.54(3.69)	0.15
Under control	24.25(4.27)	23.74(4.68)	1.46
Total	46.84(6.71)	46.26(6.83)	1.05

2) 부부간의 부모효능감의 유형

Table 3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기 부모효능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모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한 후 교차분석을 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부모효능감 수준이 일치(음영 부

분)하는 비율(부고-모고 부저-모저)이 일치하지 않은 비율(부고-모저, 부저-모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에는 부모효능감 수준이 상이한 경우보다는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이 높은 유형이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이 낮은 유형이 30.0%로 유사하였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낮는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높은 유형(19.9%)과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높는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낮은 유형(18.2%)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카이검증을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X^2=614.0, p<.001$ ).

Table 3. Crosstabulation of father's & mother's parenting efficacy

		Father's parenting efficacy	
		high	low
Mother's parenting efficacy	high	98(31.9%)	61(19.9%)
	low	56(18.2%)	92(30.0%)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Table 4와 같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가족 특성 중 거주지역, 월평균수입과 자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읍·면에 거주하는 아버지 집단이 역할자신감 차원( $F=3.97, p<.05$ )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월평균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역할자신감 차원( $F=3.30, p<.05$ )과 부모효능감 총점( $F=2.99, p<.05$ )에서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1명일 때보다 자녀가 2명일 때 부모역할의 어려움통제 차원( $F=4.26, p<.01$ )과 부모효능감 총점( $F=3.19, p<.05$ )이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본인 및 배우

Table 4. One way ANOVA of father's parenting efficacy

Variable	Parenting competence				Under control			Parenting efficacy total			
	N	M	SD	F	M	SD	F	M	SD	F	
Area	metropolitan	100	22.86b	3.51		23.88	4.30		46.74	6.43	
	small city	107	21.79a	3.36	3.97*	24.11	4.05	1.20	45.90	6.34	2.43
	rural area	100	23.16b	4.22		24.78	4.46		47.94	7.27	
Average family income	under 2,000,000won	45	22.31ab	3.77		24.22	4.09		46.53ab	6.73	
	2,000,000~2,999,999won	92	22.11a	3.99		23.42	4.25		45.53a	6.83	
	3,000,000~3,999,999won	64	21.83a	3.06	3.30*	24.23	3.77	1.68	46.06ab	5.67	2.99*
	above 4,000,000won	94	23.46b	3.56		24.82	4.62		48.28b	6.76	
Sex of child	male	165	22.53	3.80		24.01	4.03		46.55	6.30	
	female	133	22.67	3.74	0.10	24.50	4.55	0.98	47.17	7.23	0.64
Number of child	one	56	22.25	3.46		22.95a	4.19		45.20a	6.22	
	two	193	22.81	3.53	0.80	24.74b	4.16	4.26**	47.55b	6.47	3.19*
	three or more	52	22.23	4.76		23.77ab	4.60		46.00ab	7.93	
Father's age	25-35	77	22.21	3.81		24.06	3.99		46.27	6.46	
	36-38	89	23.19	3.31		24.02	4.04		47.21	5.94	
	39-41	70	22.39	4.37	1.10	24.66	4.73	0.34	47.04	8.20	0.29
	42-54	64	22.50	3.76		24.30	4.57		46.80	6.55	
Fa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04	22.25	3.63		24.40	3.97		46.65	6.47	
	college/university	158	22.75	3.90	0.88	23.97	4.26	1.06	46.72	6.77	0.76
	graduate school	38	23.08	3.46		25.05	5.13		48.13	7.41	
Father's occupation	no	7	22.29	3.73		23.00	2.77		47.29	4.15	
	blue color	49	22.43	3.59		23.98	3.91		46.41	5.93	
	sales/service	49	22.14	4.33		23.96	3.93		46.10	7.09	
	white color	58	22.98	3.62	0.80	23.98	3.77	1.30	46.97	6.07	1.01
	management	51	22.22	3.65		23.73	4.28		45.94	6.64	
	professional	81	22.94	3.68		25.23	4.84		48.17	7.31	
Mother's age	25-32	62	22.33	3.62		23.90	3.97		46.23	6.11	
	33-35	79	23.10	3.85		24.27	4.81		47.37	7.60	
	36-38	104	22.33	3.70	0.81	23.97	4.11	0.99	46.30	6.60	1.00
	38-54	53	22.81	3.96		25.11	4.29		47.92	6.55	
Mo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34	22.62	3.80		24.58	3.84		47.20	6.45	
	university	133	22.74	3.76	0.04	23.82	4.62	1.74	46.56	7.09	0.52
	graduate school	20	22.55	2.96		25.35	4.48		47.90	6.06	
Mother's occupation	no	137	23.03	3.69		24.63	4.18		47.66	6.52	
	blue color	18	22.50	3.17		23.67	3.55		46.17	5.26	
	sales/service	41	22.54	4.64		24.71	4.79		47.24	8.41	
	white color	39	21.28	3.43	1.32	23.62	3.79	0.78	44.89	6.28	1.22
	management	10	22.40	2.37		23.60	2.55		46.00	3.94	
	professional	42	22.57	3.84		23.62	4.99		46.19	7.14	

\*p<.05, \*\*p<.01

Table 5. One way ANOVA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Variable	Parenting competence				Under control			Parenting efficacy total			
	N	M	SD	F	M	SD	F	M	SD	F	
Area	metropolitan	100	23.14b	3.35		23.36	4.09		46.50	5.91	
	small city	107	21.86a	3.91	3.23*	24.32	4.86	1.33	46.18	7.61	0.09
	rural area	100	22.66ab	3.70		23.46	5.01		46.12	6.85	
Average family income	under 2,000,000won	45	22.51ab	3.96		23.80	5.43		46.31ab	7.59	
	2,000,000~2,999,999won	92	21.85a	4.02	4.90**	23.12	4.73	1.36	44.97a	7.33	3.97**
	3,000,000~3,999,999won	64	21.88a	3.19		23.37	4.15		45.25a	5.88	
	above 4,000,000won	94	23.68b	3.36		24.45	4.69		48.13b	6.35	
Sex of child	male	165	22.29	3.41	1.26	23.28	4.28	2.59	45.58	5.97	2.94
	female	133	22.77	4.05		24.17	5.16		46.94	7.78	
Number of child	one	56	22.93	3.58		23.93b	4.99		46.86b	6.52	
	two	193	22.67	3.63	1.61	24.08b	4.70	3.77*	46.75b	6.83	3.98*
	three or more	52	21.75	4.08		22.10a	4.21		43.85a	7.07	
Mother's age	25-32	62	22.45	3.84		23.73	4.54		46.18	6.71	
	33-35	79	22.84	3.54	0.41	23.72	4.75	0.81	46.56	6.63	0.84
	36-38	104	22.73	3.97		24.09	4.57		46.82	7.10	
	38-54	53	22.19	2.92		22.85	5.22		45.04	6.82	
Mo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34	22.20a	3.74		23.70a	5.00		45.90a	7.28	
	college/university	133	22.57a	3.51	3.21*	23.32a	4.23	3.23*	45.89a	6.06	4.43*
	graduate school	20	24.40b	3.67		26.15b	4.90		50.55b	7.41	
Mother's occupation	no	137	22.85	3.74		23.61	5.03		46.46	7.04	
	blue color	18	21.89	3.97		21.28	4.65		43.17	6.79	
	sales/service	41	21.76	4.17	1.84	24.07	4.34	1.30	45.83	7.51	1.03
	white color	39	21.56	3.29		24.54	3.76		46.10	5.79	
	management	10	23.70	3.77		23.90	4.70		47.60	7.17	
	professional	42	23.38	3.36		23.83	4.39		47.21	6.38	
Father's age	25-35	77	22.38	3.50		23.77	4.28		46.14	6.16	
	36-38	89	22.37	4.34	0.30	23.43	4.98	0.15	45.80	7.75	0.27
	39-41	70	22.73	3.70		23.84	4.62		46.57	6.84	
	42-54	64	22.83	3.03		23.86	5.08		46.69	6.61	
Fa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04	22.20a	3.11		23.21	4.61		45.41a	6.01	
	college/university	158	22.53a	3.98	2.93*	23.80	4.79	2.23	46.33a	7.13	3.82*
	graduate school	38	23.87b	3.67		25.08	4.36		48.95b	6.81	
Father's occupation	no	7	23.29	3.59		23.29	2.43		46.57	5.13	
	blue color	49	22.47	3.12		22.90	4.60		45.37	5.69	
	sales/service	49	22.14	3.93	0.85	22.61	4.39	1.98	44.76	6.54	1.90
	white color	58	22.05	3.64		23.71	4.30		45.76	6.69	
	management	51	22.94	4.14		23.96	5.17		46.90	7.24	
	professional	81	23.10	3.62		24.93	4.88		48.02	7.36	

\*p<.05, \*\*p<.01

자의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도 Table 5와 같이 일원변량분석 한 결과 거주지역과 월평균수입, 자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역할자신감 차원(F=3.23, p<.05)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월평균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역할자신감 차원(F=4.90, p<.01)과 부모효능감 총점(F=3.97, p<.01)에서 점수가 높았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집단이 자녀가 1명이나 2명인 집단보다 부모역할의 어려움 통제 차원(F=3.77, p<.05)과 부모효능감 총점(F=3.98, p<.05)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머니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령이나 직업은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학력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본인의 학력이 고졸이나 대졸인 어머니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인 어머니가 부모효능감의 모든 차원(역할자신감 F=3.21, p<.05; 역할어려움 F=3.23, p<.05)과 총점(F=4.43, p<.05)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이나 대졸인 어머니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인 어머니가 역할자신감 차원(F=2.93, p<.05)과 부모효능감 총점(F=3.82, p<.05)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3.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분담

Table 6은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을 4집단(부고모고, 부고모저, 부저모고, 부저모저)으로 분류한 <표 3>에 따라 양육분담을 일원변량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4 집단 모두 양육분담의 평균이 35점 내외로 유사하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62, n.s.).

Table 6. One way ANOVA of father's & mother's parenting role sharing

	N	M	SD	F
Father low/ mother low	84	34.49	6.27	
Father low/ mother high	58	35.00	6.44	
Father high/ mother low	51	35.84	5.96	.43
Father high/ mother high	91	35.48	6.38	
Total	284	35.15	6.26	

4.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분담과 마찬가지로 양육스트레스도 Table 7과 같이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 4집단에 따라 일원변량분석과 추후검정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이 낮은 집단(부저모저, M=31.20)과 부모효능감이 아버지는 낮으나 어머니는 높은 집단(부저모고, M=30.64)이 다른 두 집단보다 부모효능감이 높았다(F=14.27, p<.001).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이 높은 집단(부고모고, M=24.78)이 다른 세 집단보다 부모효능감이 낮았다(F=7.59, p<.001).

Table 7. One way ANOVA of father's & mother's parenting stress

	Father's parenting stress (n=296)			Mother's parenting stress (n=303)		
	M	SD	F	M	SD	F
Father low/ mother low	31.20b	8.47	14.27***	33.13b	7.05	7.59***
Father low/ mother high	30.64b	6.77		32.72b	8.91	
Father high/ mother low	26.83a	8.00		32.52b	8.10	
Father high/ mother high	24.78a	7.54		27.98a	9.19	

\*\*\*p<.001



## V. 결론 및 제언

첫째,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총점 및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의 제 1책임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효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간의 차이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영아(이영환·오미연 2006)나 유아(박은주 2002)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일상생활지도 및 놀이나 여가활동 등에서 역할수행이 높다(민현숙·정영숙 2005; Hoffman 1983)는 점 또한 수유, 배변 등 물리적 양육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영아기나 유아기 자녀들보다는 자조 능력이 발달한 학동기 자녀들에 대해 아버지들이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부간에는 부모효능감 수준이 상이한 경우보다는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즉, 부모 모두 부모효능감이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가 어느 한 쪽은 부모효능감이 높는데 다른 쪽은 낮은 경우보다 많았다. 이는 부부간에는 성격유형(이하식·김경연 2005)이나 성인기 애착유형(유정인·김영희·전명자 2007), 자녀양육(이재숙 2007), 자아존중감(김미라 2001) 등 심리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기보다는 유사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 결과이다.

셋째,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역할의 자신감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효능감 총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 가족수입과 자녀수에서는 부모효능감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월평균 가족수입에 따라서는 고소득 집단에서 부모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이 높을 경우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진희 2005; 이슬기 2005)

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잔존하여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인지하는 반면 수입이 낮은 경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좌절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동성 자녀에 대한 양육을 더 쉽게 지각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나 아버지들이 딸보다 아들에게 더 부모효능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이성희와 한은주(1998)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녀가 아들인 경우나 딸인 경우나 아버지들의 부모효능감은 유사하다는 이슬기(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과거에 비해 최근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나 양육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역할의 자신감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부모효능감 총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 수입과 자녀수,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효능감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월평균 가족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부모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이는 총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이진숙·한지현 2004)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많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낮았음에 비해, 어머니들은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부모효능감이 낮았다. 이는 양육의 제 1책임자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및 보육 또는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 자신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자긍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송미혜·송연숙·김영주 2007; 문혁준 1999;

이영환·오미연 2006)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학력 역시 높은 경우가 많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 유무나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등에 따라서 부모효능감이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관계없다는 문혁준(2001)과 이호영(2006),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송미혜와 송연숙과 김영주(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영아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는 류기자(200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역시 비록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기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Hoffman 1983),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지각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문혁준 2001; 최형성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이상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각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수준이 유사하든 상이하든 간에 양육분담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 부모효능감이 높은 낮은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은 양육분담 정도는 거의 같았다. 이는 부부중에서 부모효능감이 높은 쪽이 부모효능감이 낮은 쪽보다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뒤엎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각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허선자(1992)의 연구나 그리고 부모의 효능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Sanderson과 Thompson(2002)연구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즉, 어머니는 부부 모두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만 양육스트레스를 현저히 덜 느끼고 있었던 반면, 아버지는 부부 모두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뿐 아니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낮아도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김미숙·문혁준 2005; 안지영 2001; 이슬기 2005; 최형성 2005)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주로 자신의 부모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효능감도 높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주로 어머니들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부모효능감 연구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효능감,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을 질문지에만 의존하여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등 보다 포괄적인 맥락 안에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및 역할분담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부모의 효능감이나 역할분담도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에 따른 비교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양육분담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사회적 지지, 양육신념, 양육지식 등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무선 표집

이나 체계적인 층화표집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부모효능감 연구들이 주로 각각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더라도 각 개인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의 조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분담 등의 양육수행 실재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 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7(3), 113-123.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49.
- 김미라(2001) 부부친밀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영희·선희정·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은정(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기자(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민현숙·정영숙(2005)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수준과 역할수행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0, 281-306.
- 박은주(2002) 부모 효능감과 아동의 역량지각 및 외로움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유기(1998)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혜·송연숙·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위와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화(2002) 남편의 협력과 어머니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인·김영희·전명자(2007)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합 형태에 따른 유아의 문제 행동. 놀이치료연구 11(2), 105-121.
-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16(2), 23-39.
-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 - 아버지 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 이은숙(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숙(2007)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결합도 및 양육일치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하식·김경연(2005) 부부성격유형의 일치, 불일치에 따른 갈등수준과 갈등해결양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2, 51-78.
- 이호영(2006) 유치원 어머니의 부모 교육 참여,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충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김혜영·홍승아·은기수·이명진·김영란·주재선·송지선(2005) 가족 실태 조사. 여성능력개발원.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최형성(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

- 학회지 44(11), 79-89.
- 한유미(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한유진·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희(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 LE(2002) *Infants and Children: Parental Through Middle Children*. MA: Allyn & Bacon.
- Coleman PK, Karraker K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6, 754-761.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 ing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95-305.
- Floyd, F, Gilliom, LA, & Costigan, CL(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Hoffman, LW(1983) Increased fathering: Effects on the mother. In M Lamb and A Sagi(Eds.). *Fatherhood and family policy*(167-191). Hillsdale, NJ: Ellbaum.
- Martin AJ, Sanders MS(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ume* 8(4), 161-169.
- Sanderson S, Thompson VL(2002)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Sex Roles* 46(3), 99-111.
- Webster-Stratton, C(2000) The incredible years training series.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ne, 2000.